

경기도-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행위 뿌리 뽑는다

중소상공인 보호 상호 긴밀 협력
경기도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추진됐다.

이 기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서 약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

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 있다고 하면서,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 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의 업무 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신고 절차에 의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

전적으로 검토하여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하여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회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비정규직 문제 공감 내일 '희망찾기 축제'

가요제·캠페인·놀이마당 등 진행

희망찾기 축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공감대 확산과 노사민정의 상생문화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후원하고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가 주관하고 있다.

13일 개막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정규직 희망찾기 가요제, 캠페인, 참여부스 및 놀이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가요제는 비정규직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개사곡으로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9월 열린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본선을 치른다. 캠페인은 비정규직 차별 개선, 감정노동 인식 확산, 생활임금 확산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캠페인 부스마다 홍보물품 배포, 업무 스트레스 검사 등을 진행한다.

놀이마당에선 비정규직 권리 찾기 퀴즈 대회, 종이비행기 날리기, 고용 차별 철폐 컬링 게임 등 보다 활동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노동·취업·심리상담 부스는 물론 시민체험마당(토피어리 만들기, 나무교구 등), 타로카드 활용 건강상담 등 참여부스 코너도 선보인다.

/경기=김승열 기자



실전 같은 지진·재난훈련

1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옛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열린 지진 등 복합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018년 경기도 재난대비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26일부터 '동네서점전' 개최

경기도가 오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 동안 금·토·일마다 도내 12개 시·군, 21개 동네서점에서 '2018 빨간! 경기 동네서점전(이하 동네서점전)'을 개최한다.

동네서점전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서점의 존재를 알리고 응원하기 위한 문화행사다. 지난해 처음 열려 7개 시·군, 18개 서점과 1천여 명의 도민이 참가했다.

'개성을 담다, 가치를 발견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동네서점전에는 동네서점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서점별로 선보인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0월 26일 좋은 날의책방(성남) ▲10월 27일 생각을 담는 집, 북샵(이하 용인), 한가람문고(안산), 동백문고(용인) ▲10월 28일 북앤드로잉(광명) 그림책NORI(성남), 영동문고(광명), 타사의책방(과천) ▲11월 2일 꿈틀책방(김포), 리틀존영통문고(수원), 코끼리서점(성남), 미스터버티고(고양) ▲11월 3일 ch공감(하남), 신원종서점(부천), 행복한책방(고양), 고읍동커피책방(양주) ▲11월 4일 우리서점(동두천), 임광문고(수원), 비북스(성남), 한양문고주엽점(고양) 등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입구 막아놓고 '임시개방'... 식물원은 준비중

마곡 서울식물원 임시개방 첫날

미흡한 준비에 방문 시민들 분통
온실 출입제한에 실랑이 벌어져

"어휴~ 볼 게 하나도 없네. 완성이 덜 됐으면 문을 좀 천천히 열던가. 멀리서 왔는데 이게 뭐람"

"입구도 어딘지 모르겠고. 안내판도 없고. 들어가지 말라고만 하고. 나 같은 늙은이들은 오지 말라는 거요"

11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식물원. 임시 개장 첫날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준비가 덜 된 서울식물원의 모습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는 대형 공원이 없는 서남권역의 주민들을 위해 마곡단지 내에 시 최초의 보타닉공원인 서울식물원을 조성, 이 날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시민들이 일상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원'과 식물을 전시하고 교육하는 '식물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보타닉공원(Botanic Garden+Park)을 선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식물원은 축구장(7140m²) 70개 크기, 여의도공원의 2.2배 규모의 대형공원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식물원은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의 총 4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마곡나루역 3번 출구로 나와 공원으로 들어갔다. 식물원 입구와 맞닿아 있는 열린숲에는 진입광장, 초지원(잔디마당), 숲문화원 등이 조성되어 있었다. 하



11일 오전 마곡동 서울식물원은 조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지만 이날 오전 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은 열린숲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공연 준비를 위해 출입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이다.

강남구 세곡동에서 온 조연자(65) 씨는 "오늘부터 개방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왔다"며 "오후에는 사람이 많이 몰릴까 봐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왔는데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조 씨는 "저녁 공연이라도 보고 가고 싶은데 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못 보고 허탕만 쳤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중랑구 망우동에서 온 이상운(67) 씨는 "사진 찍는 게 취미라 식물원 개원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왔다"며 "잔디도 아직 덜 심어져 있고, 꽃들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길 안내 표지판도 별로 없어 찾기가 힘들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내판 제작은 전부 완료된 상태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동선을 파악해 추가로 설치할 예정"

이라며 "운영 과정 중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전통정원 등 8개 주제의 정원이 있는 주제정원도, 세계 12개 도시에서 온 식물이 전시된 온실도 출입이 제한됐다. 주제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민과 이를 제지하는 안내요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온 오모(72) 씨는 "식물원 문을 연다고 해서 멀리서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여기저기 다 공사 중이고, 무리해서 개방 일정을 앞당긴 이유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 공사가 100%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개방을 한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 개방 일정을 앞당긴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경 부분은 보완하는 중이다. 마무리 작업 단계라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식 개방인 5월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광화문광장, 시민·보행 중심 바뀐다

서울시, 전문가 대상 국제설계공모

광화문광장이 2021년 시민·보행 중심의 열린광장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도시, 건축, 조경, 도로, 교통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광화문광장의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12일부터 11월 23일까

지다. 울곡로에는 '역사광장' (4만4700m²)을 새롭게 조성해 광화문광장을 지금의 3.7배로 확장한다. 공모 참가자는 ▲역사자원 보존·활용 ▲주변지역 연계 ▲광장 디자인 ▲조경 ▲도로 및 교통계획 ▲친환경 계획 ▲안전 등의 관점에서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해야 한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사자·울곡로 등 도로를 포함한 사업대상지 12만6100m²뿐 아니라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공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